

## OECD 개발목표(DevGoals) 작업반 회의 결과

OECD 전략적 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비공식 작업반 회의가 2010년 7월 21일 OECD본부에서 동 작업반 공동의장인 Naple 노르웨이 대사와 Amano OECD 사무차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### I. 회의 개요

- 개최 일시 : 2010년 7월 21일
- 주제  
파일럿 프로젝트 공식 제안 및 이에 대한 사업예산 논의

### II. 요지 : 파일럿 프로젝트의 및 관련 사업예산 논의

#### 1. Mario Amano 사무차장의 사업추진 내용보고

- ① OECD 전략적 개발목표 사업은 개발 의제를 전체 OECD에 주류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며, 이미 대부분 위원회 의장과 분야별 개발이슈에 대한 논의를 마쳤음.
- ②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네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 분야를 선정하였는바, 이는 조세와 개발, 투자와 개발, 식량안보, 녹색성장과 같음.
- ③ 이를 위해 2011~2012 사업예산(PWB)으로 약 150만 유로 소요 예정
- ④ 43만 유로는 Part I 예산으로, 10만유로는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충당
- ⑤ 잔액 96만 유로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

## 2. 회원국의 의견

### 1) 다수 회원국의 의견

- ① 취지에는 공감하나, 기존 각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
- ② 덴마크, 뉴질랜드 등은 개발협력국(DCD)이 추진하는 기존의 PCD작업을 기반으로 기타 관련분야를 통합하는 방안 제시
- ③ 영국, 포르투갈 등은 프로젝트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단계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
- ④ 프랑스, 벨기에, 그리스 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무총장 직속 PCD담당관에 덧붙여 3인의 PCD담당인력을 추가하여 PCD추진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을 표명
- ⑤ 네덜란드는 자발적 기여금 요청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역설
- ⑥ 스웨덴, 그리스 등은 이사회에서 동 사안을 논의해야 함을 주장

### 2) 소수 의견

- ① 미국의 경우 특히 ‘조세와 개발’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 표명
- ② 핀란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.

## 3. 차기 회의 계획

이번 회의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음에 따라, 제안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revised proposal을 9월 중 발간한 후, 작업반 회의를 다시금 갖기로 함.